

폐교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문화문화공간, 폐광 시설을 활용한 아트 테마파크, 화재로 제 기능을 상실한 공간을 변모시킨 예술시장. 강원도 곳곳의 다양한 문화 공간들은 각각의 독창적인 시스템과 공간 구성으로 문화 향기를 전하고 있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진행한 '강원도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기획 우수 사례' 현장 방문에 동행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담양 대담미술관, 극단 미암 등 전남 지역에서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단체와 공연장상 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감자꽃 피는 강원도 '문화 꽃'도 피었다

노암분교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

이번 연수에서 둘러본 장소 가운데 아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소였다. 이선철 대표는 이 곳을 '평판을 먹고 사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고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수공이 간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곳도, 화려한 시설을 갖춘 곳도 아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꾸러가는 독립공간이다. 감자꽃 스튜디오는 강원도 평창초등학교 노암분교(1999년 폐교)를 리모델링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출발은 개인 작업 공간이었다. 10년간 김덕수사물놀이패 사무국장을 지내고 자유훈 등이 소속된 (주)폴리미디어 대표이사를 지낸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낙향했다.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다 2004년 평창군, 강원도,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이종호 건축

가와 함께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옛 원형을 살리면서 전면이 모던한 아트리움을 증축한 후 공간을 재창조했다. 교실 내부는 개조해 옛 분교의 흔적과 물품을 모아둔 노산분교 박물관, 취사 및 휴게 공간인 이종욱 키친,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책다방, 옛 강당을 개조한 극장 겸 스튜디오 등으로 꾸렸다. 이곳에서는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옛 학교에서 열렸던 행사를 따 봄소풍(마을 축제), 분교 캠프(방학 캠프), 가을운동회(걷기 대회), 성탄극장(송년잔치) 등을 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감자꽃 자연 영화제'를 진행했다. 또 이 대표의 노하우를 살려 지역 예술가의 공연과 전시, 음반과 출판 기획, 마을 달력과 전통사업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다. 감자꽃 스튜디오는 '지역 밀착형' 공간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이 대표가 가장 공

들었던 부분도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었다. 30가구 60여명 대부분 노인들인 주민들에 '문화'는 생소한 것이었다. 문화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에게 문화에 투자해야 관광도 활성화 되고, 공간이 부활한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하면서 애초부터 숙박 공간을 만들지 않은 점도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공간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감자꽃 스튜디오가 맡고 숙박과 식사, 체험은 마을 주민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착했다. "초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일상에 바쁜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문화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건 성과를 얻기 힘들다. 다양한 마을 행사를 통해 문화를 양념처럼 집어 넣는 게 필요하다.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문화 행사의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 대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비슷한 농촌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화재로 방치된 시장...콘서트·전시회 '열기'

원주 중앙시장 한지로 만든 세상

원주 변화가를 지나 들이선 시장은 전국 여느 시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자 상황이 달라졌다. 20년 전 발생한 화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은 읍소했다. 오래된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낡은 대로 낡은 2층 공간은 완전히 죽은 공간이었다. 한데 조금씩 둘러볼수록 흥미로운 공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변화다. 제 기능을 잃은 재래 시장에 예술인들이 들어

간 건 3년 전. 한지 공예전문가인 윤보현씨가 중심이 된 '한지로 만드는 세상'이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레지던시 사업으로 3년간 1억여원을 지원 받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청소 작업부터 시작한 예술가들은 시장 벽면에 다양한 벽화를 그려나갔고, 작가 작업실과 컵만 들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수공예 숭, 북카페 등이 문을 열었다. 시장 골목미술관에서는 작은 전시회들이 잇따라 열렸고, 낡은 화장실 개선을 위한 '백일만 콘서트'도 진행했다. 지난해 열린 '미로마켓'에는 5000명이 넘게 다녀갔다. 2층으로 접근하는 계단만 14곳이 있는 시장은

말 그대로 '미로'였다. 이리 저리 공간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술시장으로 자리를 굳힌 대인시장에 비하면 소박한 규모지만 오히려 공간의 집중도가 높고, 미로처럼 얽힌 길과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들에 수많은 이야기를 덧입힐 수 있어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듯 했다. 임대료가 월 10만원 남짓해 예술가들과 젊은 창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방문 당시에도 쿠키 가게 등 5~6개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관심이 간다.

폐광 선로 위 갤러리·광부 생활상 재현

삼탄아트마인

정선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광산 1호로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해오다 2001년 폐광된 삼탄리 연탄의 삼척 탄차 시설을 문화 예술단지로 복원한 공간이다. 정부의 폐광 지역 복원 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지난 2013년 7월 문을 열었다. 운영은 (주)솔로몬이 맡고 있으며 150개국에서 모은 10만점 넘는 예술품을 보유한 수집가 김민석씨가 대표다.

'오늘도 무사하'라는 글귀가 써진 터널을 뒤로 하고 마주한 아트마인 입구가 나온다. 삼탄리 연탄의 옛 사무동을 리모델링한 삼탄아트센터가 주 공간이다. 프린트를 지나면 8501 카페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옆쪽에는 모던한 시설을 갖춘 숙박 시설이 갖춰져 있다. 아트마인에는 모두 15개의 갤러리가 있다. 갤러리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면 '과거'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광부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벽화며 옛 월급장부 등 수많은 서류가 보관된 공간 등이 목격할 수 있다. 또 수백명이 동시에 몸을 쉴

었던 샤워실과 화장실 공간 등도 모두 전시장으로 활용 중이다. 또 김 대표가 수집한 소장품이 놓여 있는 공간들도 있다. 1년에 4차례 전시를 열고 있으며 현재는 소장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아트마인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레일바이 뮤지엄이다. '글루미 선데이'가 흐르는 곳으로 들어서자 옛 탄광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만 360명이 사망했을 만큼 매일 매일 생사를 넘나들었던 광부들의 출근길과 퇴근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만나는 공간이다. 낡은 선로와 광부들이 타고 오르내렸을 엘리베이터 등과 함께 인상적인 미술작품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강원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제공=전남문화재단)



폐교를 활용한 감자꽃 스튜디오.



원주 중앙시장 골목갤러리.



폐광을 활용한 삼탄아트마인.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